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진로 탐색에 미치는 영향

김영란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¹⁾ 이상직 (호서대학교 정보경영학과 교수)²⁾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사회인지진로모형(SCCT)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출하였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 변수로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긍정적 정서를 채택하였다. 실증분석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획득한 217부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구조방정식으로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취경험, 대리학습, 긍정적 정서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언어적 격려와 긍정적 정서는 결과기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어적 격려는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경험과 대리학습은 결과기대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모두 진로 탐색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 관계에 있어서는 결과기대가 자기효능감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중심어: 대학생 진로탐색의도,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사회인지진로모형, 성취경험, 언어적격려, 대리학습, 긍정적 정서

I. 서론

진로 결정은 개인의 전문적 경력과 삶의 만족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대학생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토대로 하여 대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탐색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고 했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학업 문제(26.52%)와 진로 문제(26.4%)로 응답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 주제로는 진로가 1순위, 학업이 2순위였다. 이렇듯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부터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힘든 입시과정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다. 그러나 성적에 맞추어 합격 위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공 부적응 및 진로문제를 호소하며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한주

1)제1저자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peal2012@naver.com

2)교신저자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lsj999@hoseo.edu

· 투고일: 2023-06-09 · 수정일: 2023-06-16 · 게재확정일: 2023-06-27

원, 2015). 입시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해 충분히 성찰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12년을 지내온 학생들이기에 대학 입학 후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진로는 스스로 관리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방향을 잡아가기 원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스스로 삶의 설계에 초점을 두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미래의 가능성과 문제를 대비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성찰 할 필요가 있다(Savickas, 2015). 비단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려 할 것이다. 즉, 변화하는 현실에 대하여 개인은 ‘어디로’,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필요가 있다(전미리, 2017).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학진학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청년실업률과 같은 문제는 사회문제화가 될 수 있기에 진로탐색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은 자신의 미래, 즉 평생의 경제활동과 자아성취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쉽게 결정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지만 대부분 특정한 전공 등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검증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들도 있었지만 많은 연구들이 연구자가 만든 모형을 토대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인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을 토대로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에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구조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했다. 둘째, 진로설정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설정된 진로에 대한 결과 기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선행 연구에서 많이 도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를 형성하는 선행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긍정적 정서들이 어떻게 자기효능감 형성 및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할 때, 무엇에 좀 더 집중해야 할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대학생의 진로탐색

현대 사회에서 진로 선택은 개인의 전문적 발전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학생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진로를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특히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대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강명숙, 방은령, 2014).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진로가 잘 탐색된다면 보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대안을 갖출 수 있으므로 이후의 구직 등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이지영 외, 2005). 또한 취업 후 퇴사율이 너무 높은 현실에서 취업 후 적응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노연희, 장재운,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진로를 고민하고 그로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정병규, 2020). 2020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9.4%에 이른다. 그리고 각 대학의 학생 정원 유지를 위한 학사관리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준비 없이 졸업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평균 취업시기는 졸업 후 10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진로에 대한 명확한 설정 없이 대학생활을 하다 취업시장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이다.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대학졸업생들의 과잉공급이나 자질 문제에 따른 취업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최선옥, 2021).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7.2%로 전체 평균 실업률 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대학을 입학함과 동시에 진로를 고민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 힘든 시간을 견디며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의 상황에 따른 다른 직장으로서의 이직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2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

사회인지이론(social-cognitive theory)은 행동과 환경, 개인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는 이론이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과 반응은 자신이 관찰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 이론은 Bandura 등이 확립하였고,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인지 과정 역할(cognitive processes pla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이러한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은 1994년에 Lent, Brown & Hackett에 의해 개발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직업 발전의 세 가지 상호 관련된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 학문 및 직업 관심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교육 및 직업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학문 및 직업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다. 이러한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은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론적 토대 중의 하나이다(Lent et al., 1994, 2000 ; Lent & Brown, 2006, 2008).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주로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라는 사회인지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ent et al., 1994).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요인인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 요인은 진로탐색의도를 밝혀내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등장하고 있다(2019, 하재영).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적인 요인인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특성보다는 개인, 행동, 환경 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Betz & Hackett, 1981). 결과기대는 특정한 과업을 수행했을 때 발생한 물질적, 사회적, 자기 평가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86). 한편, 자기효능감이나 결과기대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행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 요인으로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긍정적 정서 4가지가 중요하다고 한다(Lent & Brown, 2008). 성취경험(mastery experiences)은 개인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생기는 학습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수행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다. 언어적 격려(verbal persuasion)요인은 객관적인 사회적 설득으로 이는 다른 사람들이 개인에게 그들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개인이 어려운 작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리 학습(vicarious learning)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경험인데, 예를 들어, 동료나 친구, 멘토 등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면, 개인은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s)는 사람들이 감각, 감정, 정서 등 긍정적 정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의 결과로서 타인과 주위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는 인간적 특성을 말한다.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사람들은 흔히 열정에 차 있고, 활기 넘치며, 자신감에 차있고, 활발하며, 기민한 상태를 보인다(Lent et al., 1994 ; 2000).

2.2.1 선행변수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의 관계

이러한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롤 모델들을 통한 대리학습 및 긍정적 정서들은 자기효능감에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롤 모델을 통한 대리학습, 긍정적 정서 모두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위은하, 2018), 직업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ukwuedo & Ementa, 2022),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Dos Santos, 2022) 등이다. 한편,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롤 모델들을 통한

대리학습 및 긍정적 정서들은 결과기대에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수진, 정병규, 2022). 이는 일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코칭 분야에 대한 연구(Molyn et al., 2022), 대학생 대상 연구(Liguori et al.(2018) ; Cadenas et al.,2022)에서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롤 모델들을 통한 대리학습 및 긍정적 정서들은 결과기대에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적인 요인인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특성보다는 개인, 행동, 환경 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Betz & Hackett, 1981). 결과기대는 특정한 과업을 수행했을 때 발생한 물질적, 사회적, 자기 평가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86). 한편, 자기효능감이나 결과기대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행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 요인으로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긍정적 정서 4가지가 중요하다고 한다(Lent & Brown, 2008). 따라서 이러한 선행 요인들은 자기효능감이나 결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1. 성취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언어적 격려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대리 학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4. 긍정적 정서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성취경험은 결과 기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언어적 격려는 결과 기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대리 학습은 결과 기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4. 긍정적 정서는 결과 기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의도의 관계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은 특정한 행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과 다르게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학습이론의 일부로 Bandura가 제시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선택, 수행, 지속성, 동기수준, 효능기대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성과가 높고 긍정적이다(Bandura,1993).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일반적으로 과제에 대해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로 탐색과 관련해서 영향 변수로 자기효능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이다. 우예영, 유애영(2020)는 국내 외 진로탐색과 관련해서 발표된 연구문헌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변수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렇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위한 전제조건인 의도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주영, 이태현, 2023), 장애인의 직업 탐색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도희, 2022), 청소년의 진로탐색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주미, 2021),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oraes et al.,2023)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Chu et al., 2022) 등에서 실증적으로 검정이 되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과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포함하며,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를 쉽게 극복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때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과제를 지속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andura,199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이슈(issue) 실행과 혁신행동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결과기대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 또는 예측을 나타내며, 개인의 진로 선택과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인 요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과기대는 또한 개인의 진로 선택에 대한 동기부여를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특정 진로가 그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할 때, 그 진로를 향해 더 큰 흥미와 열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기대가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연구들이 있다. 대학생들의 고용 가능성에 대한 결과기대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정아, 2023), 결과기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어윤경, 2019), 결과기대가 선행변수와 행위 의도간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Cai & Shi, 2022), 결과기대가 택배에 드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Osakwe et al., 2022), 결과기대가 대학생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Phan Tan Luc, 2020) 등이다.

결과기대는 개인의 진로 선택과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지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즉, 결과기대는 진로 탐색의도에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결과기대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이는 보상이나 이익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감정적 만족이나 개인적 가치 실현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Lent & Brown, 2008).

또한, 결과기대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진로 탐색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의학 분야에 대한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의학 분야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높은 결과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그를 의학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도록 독려하고, 의학 분야에서의 경력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높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결과기대는 진로탐색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 모형의 기반은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이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선행 변수로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긍정적 정서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진로탐색의도이다. 이들의 구조적인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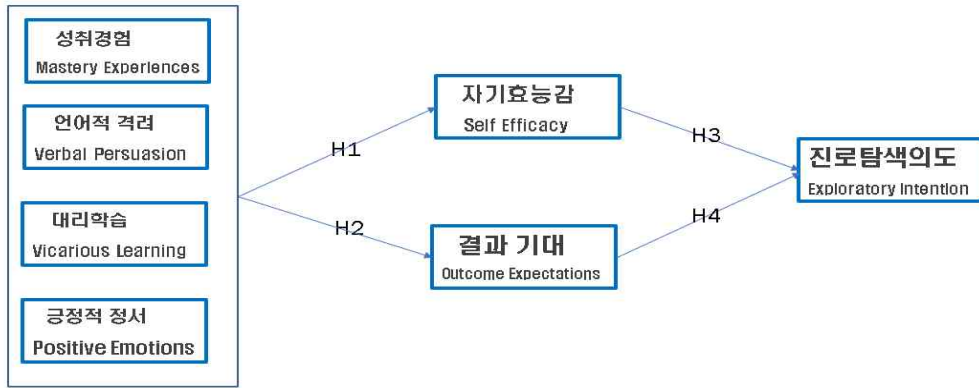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조사 설계

설문조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0부터 1월 19일까지 이루어졌다. <표1>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 문항, 참고문헌을 표기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유효한 총 217개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이 49.8%, 여학생이 50.2%로 비슷하였다. 전공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계열 40.5%, 이공계열 51.2%, 예체능계열 8.3%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2.7%, 2학년이 23.5%, 3학년이 19.8%, 4학년이 24.0%였다.

<Table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항목

구분	변수명	문항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선행변수	성취경험	4	과거의 행동을 통해 얻게된 성공에 대한 경험 정도	Lent & Brown(2008) : Chukwuedo & Ementa(2022)
	언어적 격려	4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정도	
	대리학습	4	롤 모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정도	
	긍정적 정서	3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정도	
독립변수	자기효능감	6	특정한 행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의 정도	Bandura (1993)
	결과기대	4	개인이 특정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치의 정도	Lent & Brown(2008) : Cai & Shi(2022)
종속 변수	진로탐색의도	4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결정하고자 하는 의향의 정도	Lent & Brown(2008)

IV. 실증 분석 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 학습, 긍정적 정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진로탐색의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측정 모형 분석)은 $\chi^2/df = 1.673$, RMR = .044, RMSEA = .056, GFI = .906, AGFI = .846, NFI = .915, TLI = .924, CFI = .933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CMIN/DF (χ^2/df) 값은 1.673으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RMR = .044, RMSEA = .056도 기준치에 부합하는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변수별로 측정 항목들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유의한 .6이상을 보였고 개념 신뢰성은 모두 .8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AVE는 모두 .6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측정변수를 제거하였다. 즉, 성취경험의 1문항을 제거하였다. 크론바하 알파값으로 측정된 신뢰성은 대리 학습의 경우 가장 높은 .897이었다. 반면 성취 경험은 .760으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변인들은 .810에서 .880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Table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onstruct	Variable	β	t	p	CR	AVE	Cronbach α
성취경험	me3	.656	fixed		.879	.709	.760
	me2	.619	6.031	***			
	me1	.741	7.434	***			
언어적 격려	vp4	.827	fixed		.881	.650	.880
	vp3	.841	13.910	***			
	vp2	.790	12.871	***			
	vp1	.766	12.359	***			
대리학습	rm4	.691	fixed		.871	.630	.897
	rm3	.872	11.688	***			
	rm2	.879	11.771	***			
	rm1	.879	11.771	***			
긍정적 정서	pe3	.794	fixed		.917	.786	.861
	pe2	.883	12.495	***			
	pe1	.804	13.846	***			
자기효능감	se1	.764	fixed		.918	.654	.859
	se2	.880	13.531	***			
	se3	.805	12.265	***			
	se4	.785	11.920	***			
	se5	.684	10.179	***			
	se6	.676	15.363	***			
결과기대	oe4	.658	fixed		.900	.695	.810
	oe3	.858	9.889	***			
	oe2	.749	9.147	***			
	oe1	.672	8.388	***			
진로탐색의도	ei1	.839	fixed		.908	.713	.863
	ei2	.709	11.264	***			
	ei3	.819	13.565	***			
	ei4	.783	12.809	***			

4.2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판별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했던 상관관계 계수와 AVE값의 제곱근 값 계수 사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즉, 상관계수가 AVE의 제곱근 값 보다 적은 경우 판별 타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에 해당

하므로 판별 타당성이 있다.

<Table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학습	긍정적 정서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진로 탐색 의도	AVE 제곱근
성취경험	1							.842
언어적 격려	.466**	1						.806
대리학습	.355**	.480**	1					.794
긍정적 정서	.323**	.234**	.265**	1				.887
자기효능감	.516**	.361**	.461**	.357**	1			.809
결과기대	.140*	.359**	.257**	.391**	.422**	1		.834
진로탐색의도	.242**	.192**	.280**	.610**	.320**	.361**	1	.844

**. p < .01, * . p < .05

4.3 인과관계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의 인과관계 검정 전 가설 검정의 모형 적합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관련 지수는 $\chi^2/df = 1.893$, RMR = .048 RMSEA = .064 GFI = .900 TLI=.917, NFI = .909 CFI = .910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해보면 <Table 4>와 같다. 성취경험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398, CR값이 3.952로 유의확률 .0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1. 성취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언어적 격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032, CR값이 .397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1-2. 언어적 격려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대리학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274, CR값이 3.382로 유의확률 .0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3. 대리학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긍정적 정서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176, CR값이 3.405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4. 긍정적 정서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성취경험이 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085, CR값이 .857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1. 성취경험은 결과기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 되었다.

언어적 격려가 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340, CR값이 3.605로 유의확률 .0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2-2. 언어적 격려가 결과기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대리학습이 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028, CR값이 .329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3. 대리학습은 결과기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 되었다.

긍정적 정서가 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399, CR값이 4.489로 유의확률 .0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2-4. 긍정적 정서가 결과기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한편, 자기 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196, CR값이 2.654로 유의확률 .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3. 자기 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결과기대가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398, CR값이 4.767로 유의확률 .001에서 유의하

였다. 따라서 가설4. 결과기대는 진로탐색의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진로탐색의도에 자기효능감보다는 결과기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인과관계 가설검정 결과

Path			β	S.E.	C.R.	P	검정결과
성취경험	-->	자기 효능감	.398	.095	3.952	***	채택
언어적 격려	-->	자기 효능감	.032	.058	.397	.691	기각
대리학습	-->	자기 효능감	.274	.060	3.382	***	채택
긍정적 정서	-->	자기 효능감	.176	.075	2.405	.016	채택
성취경험	-->	결과 기대	.085	.064	.857	.391	기각
언어적 격려	-->	결과 기대	.340	.047	3.605	***	채택
대리학습	-->	결과 기대	.028	.044	.329	.742	기각
긍정적 정서	-->	결과 기대	.399	.063	4.489	***	채택
자기 효능감	-->	진로 탐색 의도	.196	.075	2.654	.008	채택
결과 기대	-->	진로 탐색 의도	.398	.124	4.767	***	채택

$\chi^2 = 632.420$, $df = 334$, $p = .000$, $\chi^2/df = 1.893$, $RMR = .048$, $RMSEA = .064$, $GFI = .900$, $TLI = .917$, $NFI = .909$, $CFI = .910$

4.4 논의

첫째,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둘 다 진로탐색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로 이들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 탐색의도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증대를 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이것 역시 진로 탐색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인생 향로를 설정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이러한 것을 실행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된다. 여기서 주목해보아야 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보다 결과 기대가 미치는 영향관계가 크다는 사실이다. 진로를 설정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막연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로를 설정을 할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막연히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선행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전의 성취경험, 롤 모델에 의한 대리학습, 긍정적인 정서는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언어적 격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기효능감의 속성상 특정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므로 직접 경험한 성취 경험이나 간접적이거나 롤 모델을 통해 배운 것은 직접적으로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단순한 언어적 격려만으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된

다. 결국 직접이던 간접이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언어적 격려와 긍정적 정서이다. 성취경험이나 대리 학습은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직접이던 간접이던 경험이 중요한 요소였던 반면 결과에 대한 기대는 경험치 보다는 주변의 격려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진로의 설정은 대학생 입장에서는 아직은 미지의 길이므로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실정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탐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사회인지진로모형(SCCT)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출하였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 변수로 성취경험, 언어적 격려, 대리 학습, 긍정적 정서를 채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취 경험, 대리 학습, 긍정적 정서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언어적 격려와 긍정적 정서는 결과기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어적 격려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 경험과 대리 학습은 결과기대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모두 진로 탐색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 관계에 있어서는 결과기대가 자기효능감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1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SSCT를 기반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이 모형은 대학생 진로탐색의도를 분석하는데도 유용함을 검증하였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진로탐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나 결과기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는 결과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자기효능감이나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관계를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첫째, 결과기대가 자기효능감보다 진로탐색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현재의 외부 취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둘째,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반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격려나 긍정적인 정서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대학생의 진로를 지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대학생들도 학년에 따라 진로탐색에 대한 니즈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년이나 전공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REFERENCE

- 강명숙, 방은령(2014).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0(4), 443-467.
- 김도희(2022). 통합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주관적 안녕감 예측 모형. *디지털융복합연구*, 20(2), 431-446.
- 김정아(2023). 관광·호스피탈리티 전공 대학생의 글로벌역량, 고용가능성 인식, 삶의만족에 관한 연구: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32(2), 109-123.
- 금명자, 남향자(2010). 전공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31(1), 105-127.
- 노연희, 장재운(2005). 대졸 신규취업자들의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이 개인-직무 적합과 개인-조직 적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4), 23-43.
- 어윤경(2019).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반한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와 진로의사결정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6(4), 49-68.
- 우예영, 유애영(2020). 진로문제 관련 심리적 변인 연구 동향 분석: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8(2), 1-19.
- 위은혜(2018). 패션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패션에 관심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0(1), 1-13.
- 이지영, 장재운, 김명언(2005).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진로미결정,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과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1(1), 1-23.
- 이주미(2021). 사회인지 진로자기관리모형에 기반한 청소년의 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진로설계역량 간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4(1), 73-96.
- 이주영, 이태현(2023). 코로나19 사태가 비경제활동 장애인의 취업 의지에 미친 주관적 영향력의 예측요인: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 장벽'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3(2), 33-59.
- 장수진, 정병규(2022). 간접 경험 및 롤 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혁신연구*, 5(2), 35-48.
- 전미리, 김봉환(2018).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 모형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대학생의 성실성, 개방성 및 진로탐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30(2), 443-462.
- 정병규(2020).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IPP형 장기현장실습 경험 유무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3(1), 87-99.
- 최선옥(202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불안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배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주원(2015).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외모관리행동이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24(2), 163-185.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ndura, A. (1986). Fearful expectations and avoidant actions as coeffects of perceived self-inefficacy. *American Psychologist*, 41(12), 1389-1391.
- Cadenas, G. A., Liu, L., Li, K. M., & Beachy, S. (2022). Promoting critical consciousness, academic performance, and persistence among graduate students experiencing class-based oppression.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15(1), 26-36.
- Cai, Y., & Shi, W. (2022). The influence of the community climate on users' knowledge-sharing intention: the social cognitive theory perspective.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41(2), 307-323.

- Chu, X., Zhang, L., & Li, M. (2022). Nurses' strengths use and turnover intention: The roles of job crafting and self-effica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8(7), 2075-2084.
- Chukwuedo, S. O., & Ementa, C. N. (2022). Students' work placement learning and employability nexus: Reflections from experiential learning and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ie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36(6), 742-755.
- Dos Santos, L. M. (2022). Learning Taekwondo martial arts lessons online: The perspectives of Social Cognitive Career and Motivation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 15(1), 1065-1080.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Liguori, Bendickson, J. S., & McDowell, W. C. (2018). Revisi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pproach.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4(1), 67-78.
- Molyn, J., de Haan, E., van der Veen, R., & Gray, D. E. (2022). The impact of common factors on coaching outcomes. *Coach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5(2), 214-227.
- Moraes, G. H. S. M. D., Fischer, B. B., Guerrero, M., Rocha, A. K. L. D., & Schaeffer, P. R. (2023). An inquiry into the linkages between university ecosystem and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self-efficacy.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60(1), 134-145.
- Osakwe, C. N., Hudik, M., Říha, D., Stros, M., & Ramayah, T. (2022). Critical factors characterizing consumers' intentions to use drones for last-mile delivery: Does delivery risk matter?.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65, <https://doi.org/10.1016/j.jretconser.2021.102865>
- Phan Tan Luc (2020). Outcome expectations and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gration of planned behavior and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7(6), 399-407.
- Savickas, M. L. (2015). Career counseling paradigms: Guiding, developing, and designing. In P. J. Hartung, M. L. Savickas, & W. B. Walsh (Eds.), *APA Handbook of Career Intervention, Foundation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on Career Exploration

Kim, Young-ran¹⁾

Lee, Sang-jik²⁾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search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model was derived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were investigate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mastery experience, verbal persuasion, vicarious learning, and positive emotions were considered as antecedent variable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resulting in 217 valid responses for analysis.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4.

The findings revealed that mastery experience, vicarious learning, and positive emotion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Furthermore, verbal persuasion and positive emotions significantly influenced outcome expectations. However, the impact of verbal persuasion on self-efficacy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stery experience, vicarious learning, and outcome expectations was not examined. Both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search intention, with outcome expectations exhibiting a stronger influence.

The empirical results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college students' career exploration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academic and practical contexts.

Keyword: college student career exploration intention,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mastery experience, verbal persuasion, vicarious learning, positive emotions.

1)Author, Doctorate in Information Administration of Hoseo University, peal2012@naver.com

2)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Information Administration, Hoseo University, lsj999@hoseo.edu

저 자 소 개

- 김영란(Kim, Young-ran)
- 미래인재교육연구소 대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취업, 직업, 4차산업혁명

교 신 저 자 소 개

- 이상직(Lee, Sang-jik)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 교수
<관심분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경영, 경제 및 사회정책